



‘2026년의 빛 영광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 동계 스토브리그’가 최근 영광스포디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영광군 내 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에서 선수들이 동계 훈련을 하고 있다.

## 영광 체육 인프라로 ‘스포츠 선도도시’ 도약한다

### 축구·농구·테니스 등 전지훈련… 스토브리그도 ‘대회 개최→관광 소비’ 선순환 구조로 상권 활력

영광군이 2026년을 스포츠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 유치에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월 군에 따르면 영광지역은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한 뛰어난 접근성과 쾌적한 숙박시설, 다양한 음식점 등 안정적인 체류

여건을 갖춘 데다, 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을 비롯한 축구장 5면, 실내체육관 2곳, 실내·외 테니스장 등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보유해 동계대회와 전지훈련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지난해 전국 단위 10개 대회를 포함해 총 31개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며 약

12만명의 선수단과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127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굴뚝 없는 신성장 산업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온 영광군의 정책 성과로 평가된다.

군은 올해에도 경기장 관리와 관람 환경 개선, 참가자 편의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훈련팀 인센티브 제공, 심판비 지원, 전지훈련 선수단 보편 가입 지원, 훈련 기간 중 응급구조차량 상시 대기 등 안전하고 쾌적한 훈련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같은 준비 속에 군은 1월부터 축구고등부 11개팀 415명의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축구 초·중등부 1200명, 검도 710명, 농구 200명, 테니스 40명 등이 참가하는 4개 종목 8개 대회의 동계 스토브리그를 개최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대회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선수단과 학부모, 관계자들이 영광을 방문해 숙박과 외식, 관광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동계 스토브리그는 단기간 방문에

그치지 않고 수일간 머무르는 체류형 행사로, 숙박업소와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지역 상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 방문한 학부모들의 소비 활동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기 일정 외 시간에는 주요 관광지와 문화시설, 지역 맛집을 찾는 방문객도 늘어나 스포츠대회가 관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군은 스포츠대회 유치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없이도 단기간에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보고, 대회를 계기로 영광군을 처음 찾은 방문객들이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경험하며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26년 스포츠대회 유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종목별 저변 확대와 지역 스포츠 인프라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 정기명 여수시장, 전남도에 행정통합 미래발전 건의 전달

### 울촌 국가산단 조성·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 등 39건 구성

여수시는 최근 여수시민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 공청회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해 총 39건의 여수시 미래발전 건의과제를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공식 전달했다.

이번 건의과제는 여수의 산업·관광·교통·정주 여건을 미래형으로 재편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서별 자체 검토와 정치권 및 기관·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중점 과제를 정리·체계화했다.

전달된 건의과제는 행정통합 특별법 반영이 필요한 특례 과제 20건과 국가·광역 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핵심사업 19건으로 구성됐다.

특별법안 건의과제는 합리적인 예산 배분, 해양관광 특화지역 지정,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지방 이전, 투자진

흥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특례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울촌 미래첨단 국가산단 조성, 여수산단 CCUS 클러스터 조성,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 국제해양레저관광복합센터 건립 등이다.

시는 향후 전남도와 관계기관 협의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지속하며 상급기관에 공식 건의와 후속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통합이 되려면 지역별 실익이 특별법과 국가계획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며 “여수의 핵심 현안이 통합 논의 초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정기명 여수시장(왼쪽)이 최근 여수시민회관에서 ‘여수시 미래발전 건의과제’를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전달했다.

### 서영학 전 청와대 행정관, 출판기념회 성황

#### 남해안 신성장 벨트의 허브 대전환 예고

서영학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근 여수 시민회관에서 저서 ‘바다가 답이다: 서영학의 블루 이코노미 전략’ 출판기념회를 성황리 마쳤다.

이번 행사는 공식 퇴임 후 5년간의 연구 결실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박민규 국회의원(서울 관악구)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와 시민 2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추천사를 보냈다.

서 전 행정관은 저서를 통해 여수의 바다를 단순한 풍경이 아닌 ‘경제 영토’로 재정의했다.

그는 스마트 어업, AI를 활용한 양식한경과 첨단 항만, 친환경 해양 에너지와 해양바이오, 체험 및 힐링관광, 블루카본 등 융복합 기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여수를 ‘남해안 신성장 벨트의 허브’로 탈바꿈시



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여수 모도 동장으로 시작해 중앙부처 과장, 청와대 행정관을 거치며 쌓은 저자가 국정 경험과 행정

안목을 바탕으로, 남해안 벨트를 연결하는 해양 관광·산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풀었다. 서영학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이 책은 여수의 내일을 위한 서영학의 ‘정책 제안서’를 시민 여러분께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다”며 “블루 이코노미라는 비전이 활자에 머물지 않고 시민의 밥상과 일터,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되도록 검증받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순천, 장애인 사회참여 제공 맞춤 일자리 확대

#### 4개 분야 333명 참여…전년비 37명 증가

순천시는 2026년 장애인일자리를 확대 추진해 전년 대비 37명 증가한 총 333명의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이번 장애인일자리는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전남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4개 분야로 운영된다.

먼저, 일반형 일자리에 52명이 장애인에 인형정도우미로 참여해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복지형 일자리에 235명이 참여해 환경정비 활동과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 업무 수행하며,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질서 확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화형 일자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서비스에 8명이 참여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에서 어르신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요양보

호사 보조 일자리에 18명이 참여해 요양보호사를 지원하며, 고령자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다.

이와 함께 전남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에는 20명이 참여해 장애인 차별 예방 교육, 연극 및 문화예술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장애인일자리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공동체 참여 확대와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적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촘촘한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 나주 ‘빛가람 꿈자람센터’ 6일 개관

#### 돌봄·육아·독서 등 생활밀착형 복합시설 운영

나주지역 아동과 가족을 위한 돌봄, 육아, 독서, 생활 서비스를 한곳에 담은 생활밀착형 복합시설 ‘빛가람 꿈자람센터’가 오는 6일 문을 연다.

‘빛가람 꿈자람센터’는 어린이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을 비롯해 육아지원센터(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로컬푸드직매장을 포함한 복합시설이다. 지상 2층, 지하 1층, 건축면적 2880㎡, 연면적 4639㎡ 규모로 조성됐다.

개관식은 6일 오후 2시에 열리며, 행사 이후 시설별로 순차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어린이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는 개관일에 맞춰 운영을 시작하고 육아지원센터(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는 오는 27일 정식 개소된다.

센터는 영유아부터 어린이, 보호자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으며, 어린이 맞춤형 독서와 체험 프로그램, 육아 지원 기능, 먹거리 환경을 결합해 돌봄, 학습, 휴식, 생활이 연계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번 시설 개관을 통해 아동친화적 독서환경 조성, 육아 가정의 일상적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확충, 생활권 중심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지역 맞춤형 생활복지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난임, 임신, 육아, 가사 돌봄 등 생애주기별 출생·양육 지원 정책과 연계해 공공산후조리원과꿈자람센터를 통해 도보생활권 내에서 산후 관리와 육아, 돌봄과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정주 친화형 도시 환경 조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시설 운영 시간과 프로그램 일정 등 세부 사항은 향후 나주시 누리집과 관련 부서를 통해 안내된다.

시 관계자는 “‘빛가람 꿈자람센터’ 개관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공간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수요를 반영한 복합형 공공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정 기자 pose007@

### 장성, 5일 승효상 건축가 초빙 강연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등 역임

장성군이 5일 열리는 제1226회 장성아카데미 강사로 승효상 건축가(사진)를 초빙했다.

승효상 건축가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비엔나공과대학 등에서 후학을 양성해왔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서울시 초대총괄건축가 등을 역임하며 건축·도시정책 발전에 기여했다. 2020년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현재 동아대학교 석좌교수와 ‘이로재’ 건축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파주출판도시, 유홍준 작가의 자택인



이 지녀야 할 공공성과 가치에 대한 본인의 지론을 들려줄 예정이다.

세계 최장기간 운영 기록을 보유한 장성아카데미는 매일 첫째, 셋째 주 목요일마다 열린다. 오후 4시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 오면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성=이항범 기자 hbb699@gwangnam.co.kr